장인 집에서 발견한 동전 100만 개

▲ 지하실에서 발견한 1센트 동전이 담긴 수십 개의 자루와 박스들. 사진=samaaenglish.tv

한 가족이 지난해 가을 돌아가신 장인의 집을 청소하다가 동전 더미를 발견하고 곤란을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존 레예스(41) 가족이 최근 이 집 지하실에서 발견한 동전은 모두 1센트짜리로 무게 측정 결과 약 100만 개(1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레예스는 동전들을 지폐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금고에 여유 공간이 없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그러던 중 한 은행이 희귀 동전이 있을 수 있다며 찾아보라고 했다.

미국 조폐국은 처음 1센트 동전을 만들 땐 구리를 사용했지만 1943년 한 해 동안은 아연으로 도금한 강철을 이용해 만들었다. 조폐국에 따르면 당시 발행된 동전은 시장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에 해당 동전은 1996년 8만 2,500달러에, 지난해에는 약 30만 달러에 판매됐다.

그러나 레예스 가족은 동전이 너무 많아 전체의 1~2%만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희귀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레예스 가족은 희귀 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에 동전을 2만 5,000달러에 올렸다. 이후 해당 동전 관련 구매와 관련해 수백 차례 문의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에 잠겨있던 460년 전 교회, 가뭄으로 모습 드러내

최근 가뭄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멕시코 치아파스주 네우알코요틀 저수지에서 16세기에 지어진 산티아고 교회(케촐라 교회)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 가뭄으로 모습을 드러낸 16세기에 지어진 산티아고 교회. 사진=unotv.com

1564년 완공된 이 교회는 1966년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약 30.5m 깊이의 물에 잠겼다. 이후 2015년 당시 역시 가뭄으로 교회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물속에 잠겼는데, 최근 가뭄이 다시 심해지고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8년 만에 교회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약 6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물에 잠겨 있었지만, 교회 구조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돼 있다. 멕시코 당국은 한때 산티아고 교회를 유네스코 유산 목록에 올리려 고려하기도 했지만 현실이 되진 못했다.

교회가 물에 잠길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주민은 "교회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을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면서 "이러한 유적이 오랫동안 물에 잠긴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이라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는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멕시코 영토의 52%가 건조한 기후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뭄의 빈도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

고가도로 한가운데 아파트가 덩그러니

▲ 고가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아파트 모습. 사진=theatlantic.com

중국 광저우 용싱지에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고가도로 한가운데에 8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우뚝 서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광저우의 이색 명소로 자리잡은 이 아파트의 사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아파트의 주변 건물들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발업자들과의 합의 끝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반면, 8층 아파트에 살고 있던 궈즈밍 형제 셋은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제안을 거절했다. 형제는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40만 위안(약 6만 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갔다. 당시에는 그 돈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사기에 충분했다." 고 말했다.

결국 개발업자들은 아파트만 남긴 채 그 주변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는 오늘날 고가도로 한가운데에 남게 됐으며, '알박기의 나쁜 예' 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궈즈밍 씨 형제들은 시끄러운 것만 제외하면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수도와 전기도 잘 공급되고 있으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슈퍼마켓도 있다며 나름 만족하고 있다.